

대강절 세 번째 주일 Third Sunday in Advent

촛불 점화

세 번째 분홍색 초를 점화한다.

예배로의 부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6~7)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는 기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 불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이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 우리의 마음도 낮추고, 주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서 교독

시편 126:1~6

인도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회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CANDLE LIGHTING

Light the third (pink) candle.

CALL TO WORSHIP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Let the wicked forsake their ways and the unrighteous their thoughts.

Let the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them, and to our God, for he will freely pardon.”

(Isaiah 55:6-7 NIV)

Today we gather here, drawn by the gracious invitation of our Lord, as we wait in this season of Advent, looking to the light of Christ. Let us open our hearts to the Lord, fixing our eyes on the grace of God, who brings light even in the midst of darkness. With gratitude and joy, let us worship our holy and glorious God.

OPENING PRAYER

Holy and merciful God, though we are unworthy to be called your children, you have called us your own. We give you thanks for the immeasurable grace that sent your only Son, Jesus Christ, to save us from the shadow of sin and death.

As we remember the humility of our Lord, who left the glory of heaven and came to dwell in the lowest places of this earth, help us, during this season of Advent waiting, to humble our hearts before you and joyfully welcome your presence.

Receive this worship we offer with all our hearts, minds, and strength. Through our songs, our prayers, and the proclamation of your Word, may you alone be glorifie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and Redeemer. Amen.

*HYMN

“Come, Thou Long-Expected Jesus” (*United Methodist Hymnal*, 196)

RESPONSIVE READING

Psalm 126:1-6 (NRSV Adapted)

Leader: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s of Zion,

Congregation: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Leader: Then our mouth was filled with laughter,

Congregation: And our tongue with shouts of joy.

인도자: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회중: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인도자: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회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인도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회중: 우리는 기뻐하였도다.

인도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회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인도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회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세 개의 대강절 초를 밝히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리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Leader: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Congregation: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Leader: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Congregation: And we rejoiced.

Leader: 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the streams in the Negeb.

Congregation: May those who sow in tears reap with shouts of joy.

Leader: Those who go out weeping, bearing the seed for sowing,

Congregation: Shall come home with shouts of joy, carrying their sheaves.

*AFFIRMAT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HYMN: GLORIA PATRI

“Glory Be to the Father” (*United Methodist Hymnal*, 70)

PRAYER

Gracious and Holy God,
Today we light the third candle of Advent, waiting with hope and longing for the coming of our Lord. Though our streets are bright with lights, the darkness within our hearts has not yet lifted.

분주함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쉼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애통한 자들은 위로받지 못하며, 외로운 이들은 여전히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춥고 긴 밤, 잠 못 이루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소서.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머물 곳조차 찾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 대강절의 기다림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평화의 도구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2:1~12

추천하는 다른 성경 본문

시편 126편, 이사야 61:1~4, 8~11, 데살로니가전서 5:16~24, 요한복음 1:6~8, 19~28

특별 찬양

말씀 선포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봉헌

*찬송

118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보냄과 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히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불안 속에 있지만, 참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절망의 자리마다 소망의 빛을,

In the midst of our busyness and anxiety, our souls hunger for deep rest.

The world remains cold, and those who weep still find no comfort.

The loneliness remains unseen,

and we confess that we have failed to care for our neighbors who suffer through long, sleepless nights.

We admit that we have often ignored the one who came in weakness and humility—

the Christ who came to dwell among the least of these—because life felt too hard or we were too distracted.

As you once said,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we pray that, in this world where you still struggle to find welcome,

we might become your dwelling place.

Let this season of Advent not stop at words,

but move through our lives as living testimony.

May our faith be more than confession—may it become compassion.

Teach us to follow the love of Christ, who is near to the brokenhearted,

and make us instruments of peace and bearers of comfor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we pray.

Amen.

SCRIPTURE READING

Matthew 2:1-12

Suggested Additional Scripture

Psalms 126, Isaiah 61:1-4, 8-11, 1 Thessalonians 5:16-24, John 1:6-8, 19-28

SPECIAL MUSIC

SERMON

*HYMN

“In the Bleak Midwinter” (*United Methodist Hymnal*, 221)

*SENDING FORTH AND BLESSING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day we have lit the candle of joy, proclaiming that the coming of our Lord is near.

The world may still be filled with darkness and uncertainty, but true joy is not found in our circumstances—it is found in Jesus Christ alone. Now, as we open the doors of this sanctuary and go out into

슬픔의 자리마다 기쁨의 노래를 전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으로 기쁨의 복음을 증언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갈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 주시며, 기쁨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쁨의 빛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world, let us carry the light of hope to every place of despair and the song of joy to every place of sorrow. As we wait for the Lord who will come again, let our very lives bear witness to the good news of great joy. And now, may the boundless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came in human form to bring us true joy, the unfailing love of God the Father, who hears our longings and prayers and comes to meet us, and the comforting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ho plants joy in our hearts during this Advent season and empowers us to live as witnesses of joy, be with all who have worshiped here today, and now go into the world carrying the light of joy into their homes, workplaces, and every part of their lives, from this day forth and forevermore. Amen.

* 표시가 있는 곳에는 할 수 있으면 일어서서 예배한다.

**Please stand where indicated.*

*대강절 세 번째 주일예배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을 위한 한영예배 자료로 이강원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예배는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예배드릴 때 사용할 수 있고, 각 회중이 따로 예배드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ngwon Lee wrote this order of Third Sunday in Advent for a bilingual Korean-English congregation. This service can be used when the Korean-speaking and the English-speaking members worship together, and it can also be used when each worships separately.

Rev. Dr. Kangwon Lee holds a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from Seoul Theological Seminary and a Th.M. fro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He earned a Doctor of Ministry from Wesley Theological Seminary in Washington, D.C. He was ordained as an elder in the California-Nevada Conference and currently serves at Jesus Love United Methodist Church in Cupertino.

Bible verses marked NIV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